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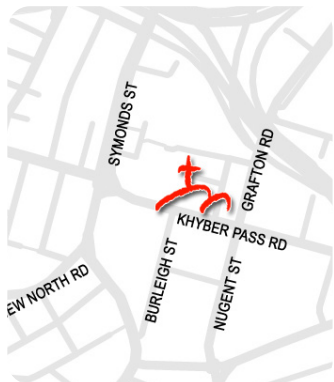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 민다가 낙심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바랍니다.
- 2020년 하반기 성경 정독 운동을 오는 8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모임이 되기 바랍니다 (찬송, 기도, 안건 토의).
- 새 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먼저 다가가 인사하며 덕담으로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 오늘 점심 교제 떡은 이정인 집사, 김선화 권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 박영선 집사 친정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 못 한 슬픔에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8월 교회사역일지

8월 9일 (주일) 전도주일
8월 16일 (주일) 인도자 성경공부
8월 23일 (주일) 권사 기도회
8월 26일 (수) 1,2 남선교회 헌신예배

8월 기도순서

8월 9일 (주일) 박덕철 장로
8월 12일 (수) 정옥자 권사
8월 16일 (주일) 박병민 장로
8월 19일 (수) 정진택 집사

8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병진,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31호 2020.08.02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00:1-3	인도자
✧찬송	27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70장	다함께
대표기도	-----	김철재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10:1-5,32	인도자
찬양대찬양	하나님께 찬송 드리세	나무삼자가찬양대
설교	노아의 후손들	이태한 목사
찬송	435장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응답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장경희 집사
누가복음 5:27-39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태한 목사
284장
다같이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청년예배

금주기도 유태림 형제
다음주일 이지수 자매

선교란

이번 주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고국의 여름 장마와 어수선한 정국 가운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모두 평안하신지요? 또한 저희처럼 고국을 떠나 있으면서도 잊지 않고 기도로 중보하시는 동역자들에게도 주의 평강으로 문안합니다. 저희들은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생명을 연장 받아 사역지를 지키며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부족한 것이 많지만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남아공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51,209명이고 사망자 2,657명이며 이곳 웨스턴 케이프는 확진자가 62,481명 사망자 1,859명으로 남아공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달 선교 현장 스케치에 이렇게 보내 드렸었는데 이 달에는 무려 7월 28일 기준 확진자 459,761명 사망자 7,257명, 저희 지역 확진자 92,983명, 사망자 2960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남아공의 고질병인 부정부패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경찰서가 30곳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임시 폐쇄가 되었고 사회 전반에서 시위와 폭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악순환은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어둠의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2~24).

매 순간마다 뒤에서 보내주시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절감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늘 사랑하는 조국과 동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7.30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기도 제목

-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온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 선교사의 안전과 건강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 직업을 잃은 사람들과 일일 노동자들에게 소망과 도움을 주는 선교가 되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진리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거룩한 영향을 지역사회에 나타내도록.
2. 영육의 질고에 시달리는 성도가 놓임 받고 삶이 소외된 성도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3. 교회학교가 영육으로 강건하게 잘 성장하여 교회의 미래가 되도록.

나눔란

2020년 7월 2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실수에 대한 반응> 창세기 9:18-29

나이든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이며 신앙인에게는 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나이도 들었고 신앙인이지만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9:21).

노아가 실수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9:20-21). 홍수 심판 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안심하며 방심한 노아는 심판이 끝난 것은 알았으나 자기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잊었기에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은(9:20) 히브리 원어로 보면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였지만(6:9)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에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만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엢 5:18)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말이 많이지고 자꾸 권하게 되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반면 술 취함은 우리를 방탕과 음란, 다툼과 온갖 육신의 일로 이끌어 갑니다.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9:21). 이 벌거벗음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벗은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것입니다. 술과 돈과 권력에 취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돈과 술이나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처럼(롬 3:10, 23) 인간의 죄성은 교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6:8). 이것을 망각했을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바로 넘어지는 것을 알고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고전 10:12)

실수를 대하는 함의 태도는 노아가 자기 손자인 함의 아들을 저주했을 정도의 큰 실수였습니다(9:25)

1)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은(9:22) 원어로 보면 고의와 악의로 일부러 보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창 3:6). 눈으로 보고 조롱하는 것은 남의 실수와 실족함을 즐거워하는 부패한 성품이며 타락한 본능의 증거이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2)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린 것은(9:22) 원어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웃의 실수를 알리고 퍼 나르고 정죄하는 것은 함의 모습입니다.

보고 알리고 다닌 결과 함은 저주받아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9:25).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았으며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봉사와 섬김의 태도로 어깨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9:23). 그 결과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며(9:26) 셈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계보가 완성되는(11:26)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 야벳의 복도(9:23) 참된 안식과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덮으며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은혜를 상실해 실수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일으키는 복 받은 성도로 가득한 갈보리 교회되길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묵상: 이사야 29 - 58장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0: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